



초량왜관과 연향대청 사이의 대청로(숲이 있는 담장길) * 겸재 정선의 동래부시왜접도(연향대청의 연회)

부산 중구 대청로

근현대 숨결 품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태어나다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청로의 전차길(대청정선)과 가로경관(©부산시)

2013년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부산일보 2011.8월 15일자 / 김열규 교수의 '내 부산, 내 옛 동지' 19
 부산의 부두 네 곳(4부두)은 결정적인 구실을 맡았다. 유엔군의 탱크, 대포들을 비롯한 각종 무기, 전쟁 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는 기지였던 부산 부두가 없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부산 부두가 없다면 우린 이 전쟁에서 못 이길 거요' 미군의 한 장교는 마침 통역을 하고 있던 나(김열규교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겹지와 중지로 V자를 그려 보였다. 그 V자는 한국현대사의 크나큰 고비에서 부산이 감당해낸 구실에 바쳐진 것이었다.



광복 후, 귀환 동포의 대청로 행진 모습(©부산시)



전쟁 후 1952년의 중양동 일대(©부산시)

대청로가 걸어 온 길

대청로는 16세기 이후의 조선시대에 초량왜관(치외법권지역)과 비치외법권지역을 구분하던 경계 역할을 담당했던 담장 길이었다. 이 때문에 대청로 주변에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등이 일본사절에게 연회를 베풀던 연향대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길을 중심으로 용두산과 마주한 야산(북병산)에는 북병막이라는 왜인을 감시하던 초소가 있었다. 연향대청은 ‘고명(高明)의 문화국이 미개인을 제어한다’는 의미를 가진 유원능통(柔遠能通)에서 유래한 이름인 유원관(柔遠館)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아 이곳 대청로는 조선시대 유원능통의 자주적 외교의 실효를 거두었던 첨단의 기지였다.

그러나 개항 후, 일인들이 초량왜관 터에 모여들면서 대청로는 일인들의 전관거류지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이곳을 대륙 침략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자연스레 근대 문명을 인입시켰고, 교통(전차), 전기(부산발전소), 통신(부산우체국), 항만(1,2부두), 수도(북병산배수지), 행정(부산부청, 경남도청,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등

근대의 각종 인프라와 시설들을 대청로와 그 일대에 조성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부산에 있어 부산의 중심가를 되찾는 일이었다. 대청로와 연결되던 제1부두는 퇴각하는 일인들의 처참함을 지켜보던, 또 강제 동원되었던 귀환 동포들의 유입구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부산은 조국 광복을 최전방에서 누린 도시였고, 대청로 또한 대한민국 광복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전쟁은 대청로의 역할을 완전히 전환시켰다. 대청로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023일간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기능했다*.

대청로 시점부에 입지한 옛 경남도청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도청관사는 대통령관사로 사용되었고 국회의 기능도 주변에 수용되었다. 즉, 당시 대청로는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국가간 선로 기능했고, 부산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반전시키게 했던 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1차 수도 : 1950년 8월 18일~10월 27일 / 70일

2차 수도 : 1951년 1월 4일~1953년 8월 15일 / 953일





대청로에서의 학생민주화운동(©부산시)

패망과 함께 본국으로 철수하는 일인들의 물건과 적기(赤崎)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온갖 군수물자들을 팔며 ‘뚫떼기 시장’으로 불리던 국제시장은 전쟁 후 국가상업유통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기능이 발전했다. 당시 대청로 주변에는 국제시장 외에도 부평동 강통시장, 보수동책방골목, 자갈치시장, 제2부두(5만 부두노동자의 생계지원처), 충무동 시외버스터미널, 40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피난민촌 등 피난시설의 생계유지와 국가 재건의 기반이 되었던 다양한 생산과 생활지원 공간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60년대에 접어들며 대청로는 부산의 정치행정기능(부산지방법원, 경남도청 등)과 물류여객산업기능(1, 2부두, 연안부두, 부산역)을 동서로 연결하던 소통 장으로서, 또 피난민의 주거지인 산복도로일대와 부산 원도심(광복동, 자갈치시장 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생활거점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된다. 70~80

년대의 대청로는 군사독재시절 항거했던 부산 민주운동의 성지였다. 부산 민주화운동의 근거지였던 중부교회와 최성목목사(1972~1992)의 활동과 보수동책방골목(협동서점), 부산카톨릭센터 등의 입지 때문이었다.

1998년 부산시청의 연산동 이전은 광복동과 남포동을 비롯한 중구 일대의 원도심 쇠퇴현상을 본격화시켰고, 대청로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이 개관과 근대이후 대청로의 아이콘이었던 보수동책방골목이 해체 위기를 넘기면서 대청로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전반적인 침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행히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2007년) 후 광복로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된 각종 도심재생사업이 주변부에 집중되면서 대청로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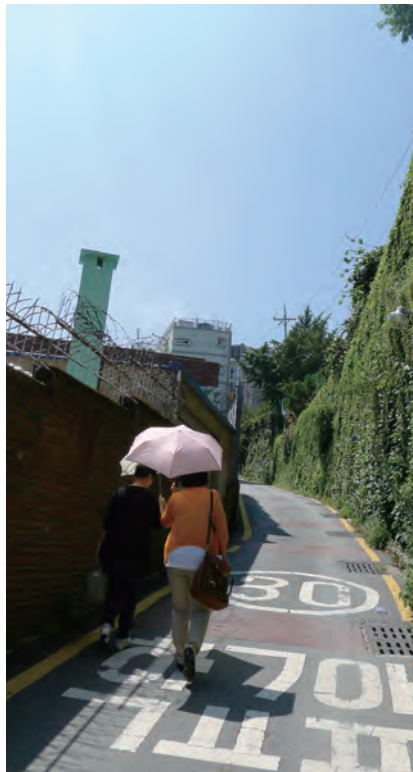


대청로의 전경들

대청로라는 곳

짧게 살펴본 대청로의 변천사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특성으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특성은 대청로가 조선시대 외교 국방의 최고의 첨단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초량왜관의 터로써, 개항 후 전개된 다양한 근대사의 현장으로써 ‘대한민국 최초 개항도시의 근대화를 실천했던 장소’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질곡의 근대사 속에서 대청로는 지방도시 중 최고 근대문명의 태동지로, 광복의 기쁨

을 누린 기념지로, 또 피난의 아픔을 떠안은 고통지로 시대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 근대사 발현의 보고(寶庫)’라는 특성이 다. 세 번째는 대청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구릉정주지대(산복도로)와 항만지대라는 생산과 생활의 직주근접체제를 지탱해 왔다. 이에 대청로 일대는 ‘살아있는 또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는 생활문화지대’라는 특성이다.



대청로 일원의 골목길들과 주요 가로

이러한 특성들은 대청로 변신의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대청로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표출하는 ‘근대생활 박물관 Modern Living Gallery’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또한 광복기의 의지, 임시수도기의 정신, 60년대 이후의 민주 정신과 문화예술과 실용 등의 시대 가치들이 공존하는 신 개념의 ‘문화특별지대’로서의 잠재력도 크게 부각된다. 사실 근대역사에 근거한 대청로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하지만 대청로 일대의 가장 큰 매력은 ‘골목길과 골목문화’다. 약 60여개 소의 크고 작은 골목길들이 대청로에 연결되어 있고, 특히 영선고갯길, 논치길, 백산거리(일본인거리), 각종 재래시장길, 보수동책방골목, 인쇄골목 등을 부산의 대표골목길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동책방골목 외에는 골목길의 성격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단순한 통과형 이동로나 소규모의 영세상점들이나 열린 이면가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로는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발현되는
보고이자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는
생활문화지대
이다.





미래 변화의 실마리가 될 대청로의 문화형 작은 가게들

하지만 대청로의 골목길들은 싹틔죽처럼 연결되어 대청로의 존립의 근거가 됨으로써, 장차 지역 공동체와 함께 작동한다면 골목경제 활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청로의 다양한 골목길들은 근현대 역사 및 생활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한 '슬로우 근대 타운리조트'(Slow Modern Town Resort)로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청로 일대의 가장 큰 매력은 '골목길과 골목문화'다.

약 6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골목길들이 대청로에 연결되어 있다.



근대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대청로 가로풍경



카니발과 공연이 펼쳐지는 용두산 아트힐 플라자

미리 가본 2030 대청로

상상을 해본다. 종절모와 고전적인 양장이 더 어울리는 회색빛 대청로임에도 영화인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골목길마다 1930년대 대청동과 광복동을 휩쓸었던 하이 스타일이 재현된 양복점, 이발소, 양장점, 빵집, 단팔죽집, 구두방, 담배가게 등 근대기 신사숙녀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줄 지어 서있다. 단순한 복고풍의 재현이 아니라, 대청로는 지역과 밀착된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번성 중인 살아있는 창조경제의 생활지대다. 그래서 그런지 대청로와 골목길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느리게 움직인다. 근대역사관과 마주한 가로의 합벽건축물들은 근사하게 근대풍으

로 옷을 갈아입었다. 또 백산거리의 금생약국건물, 청자다방건물, 삼우당화랑 등의 근대건축물들도 옛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얼마 전부터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조만간 북항 쪽으로 연결되어 원도심 교통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될 것이다. 복원된 전차 때문에 대청로는 근대풍의 고전적 이미지와 저에너지 녹색교통이라는 첨단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길이 되어 가고 있다. 전차는 대청로를 느리게 만들고 있다. 국제시장에 장을 보러가고 부산역을 가기위해 스치며 지나던 대청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대청로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다.

* 대청로의 전차는 1910년 한국와사전기(주)가 장수통(광복동), 신정통(창선동), 토성정(토성동)을 거쳐 대청정(대청동)을 경유하면서 시작된다. 1915년 11월 1일 부산우체국 ~ 동래 온천간 전차 운행이 본격화 된 후 장수통과 대청정을 경유하는 시내 전차선을 건설했고, 1916년 9월 22일에 총 연장 1,488m에 이르는 대청정선(총 연장 1,488m/부산역 ~ 부산우체국

~ 대청정2정목(대청로2가) ~ 보수정(보수동) ~ 보수정2정목(보수동2가), ~ 부성교(현토성교) ~ 토성정(조선와사전기 사옥 앞)이 개통된다. 이후 대청정선은 1953년 즈음에 선로를 폐지하고 운행을 중지한 것으로 추측한다(표용수, 부산 전차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 2009, 91쪽).



복원된 전차가 다니는 대청로

대청로는 지역과 밀착된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번성 중인 살아있는 창조경제의 생활지대다. 대청로와 골목길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느리게 움직인다.

2013년에 우연히 조우했던 '문화행동'이라는 거리공연단체와 함께 '거가거가(巨歌巨街)'라는 재미난 '용두산 아트힐 카니발'을 개최한지 벌써 15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즐거운 일이 많았다. 근대풍의 카니발 거리라는 새로운 여가문화를 시민들에게 선사했고, 주말이면 용두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고 벌어지는 '거가거가(巨歌巨街) 공연'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은 한국은행이 문헌금융단지로 이전 한 후, 부산시가 이를 부산시기념물로 지정하고 거금을 들여 매입하여 '대청문화공연장'으로 문을 연 것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대청로에 항상 넘쳐나고 있다. 이들로 인해 대청로의 골목골목은 늘 경쾌한 발자국소리와 그들이 내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거가거가(巨歌巨街) 용두산 아트힐 카니발 풍경(2013.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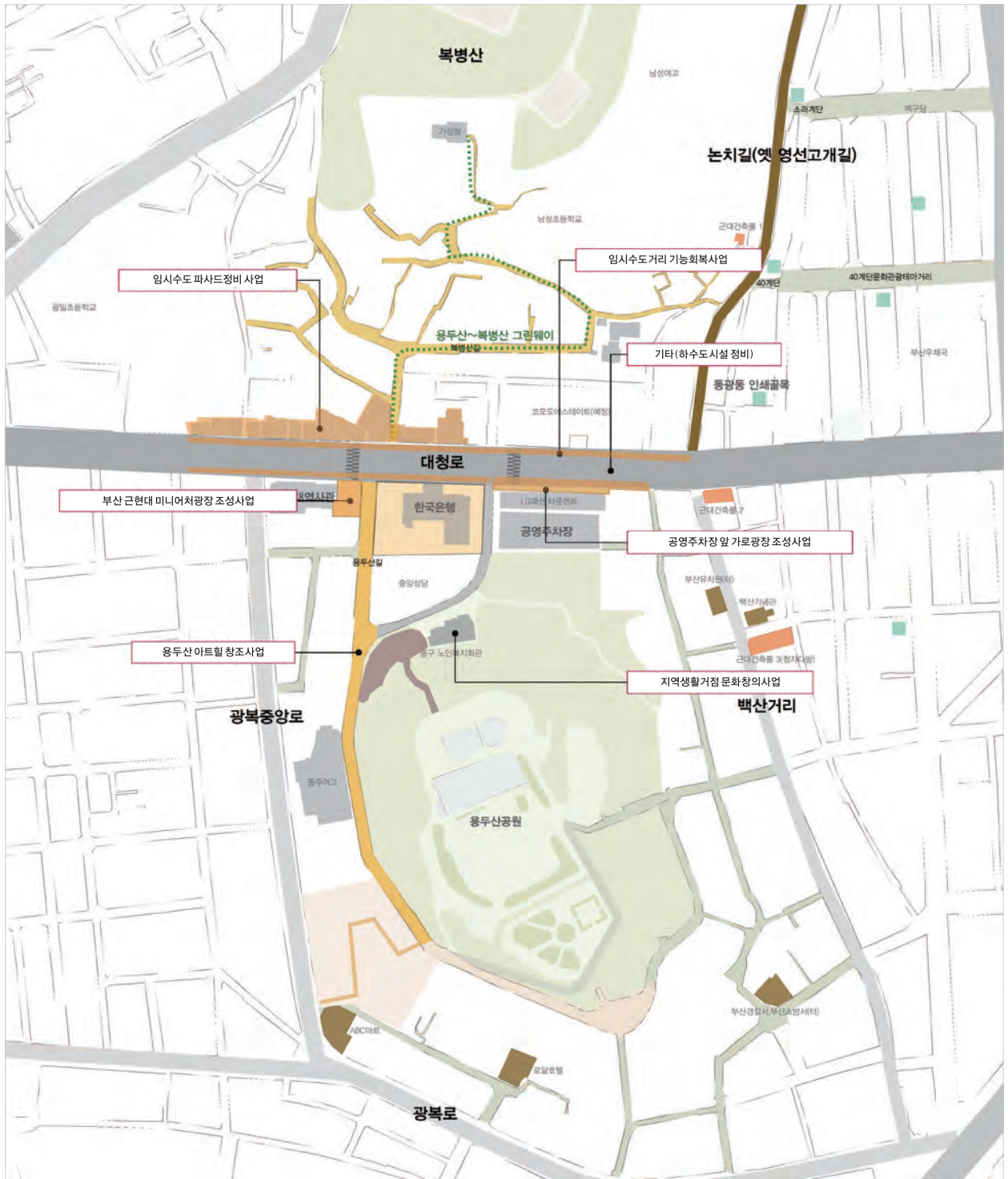
대청로의 꿈

이처럼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곳이 대청로다. 150여년의 역사가 누적된 곳이기에 하얗고 싱싱한 알맹이가 몇 겹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양파 마냥 대청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산의 원석(原石)이다. 이런 곳은 늘 하듯 급히 다루거나 하드웨어만을 바꾸거나 채워서 안 된다. 느리면 느릴수록,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빛이 나는 곳 이 이런 곳이다.

대청로와 그 주변부는 미약하지만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산복도로가 천덕꾸러기 달동네에서 부산의 소중한 근대정주대로 변신을 하고 있고, 보수동책방골목과 부평동강동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대청로를 찾는 발걸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2013년 여름부터 올 봄까지 국토디자인시범사업에 따른 실시계획(300미터 구간)이 마련되었고, 작년 가을 시민들이 매우 즐거워했던 巨歌巨街 용두산 아트힐 카니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예산 때문에 힘

들어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인들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애기다. 하지만 상황 타개의 묘책도 있다. 바로 꾸리짜바의 레르네르 사장이 늘 주장했던 ‘창의성과 예산론’이다. “창의성은 예산에서 0 하나를 뺄 때 비로소 탄생된다. 두 개의 0을 뺄 수 있다면 그 도시는 진정한 창의도시가 될 수 있다.” 분명 대청로의 꿈은 돈이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꿈을 꾸어 가면 좋겠다. 형클어진 실 뭉치에서 한 올 한 올 실타래를 풀어가듯 대청로가 조금씩 조금씩 창의적으로 움직여가길 기대해 본다.

대청로는 다듬어 지지 않은 부산의 원석과도 같다. 다루기를 느리면 느릴수록,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빛이 나는 곳이다.



대청로의 작은 꿈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실시계획(300미터 구간) 수립 대상지